

여성 수영복용 브래스트캡의 착용실태 및 불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 정 화* · 최 혜 선** · 도 월 희***

한일합섬 레쥘메 사업부 디자이너*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강사***

A Study on Wearing Conditions and Dissatisfaction with Breast Cap for Current Womens Swimsuits

Joung-Hwa Noh* · Hei-Sun Choi** · Wol-Hee Do***

Designer, Resume Hanil Synthetic Fiber Co., Ltd.*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4. 30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the comfort and fit of womens swimsuits through analysis of the present wearing conditions and users complaints. In order to compile the information about dissatisfaction with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t of breast cap for swimsuit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364 females (over 20 years old under 60 years old).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such as the reasons for selecting to wear breast cap for swimsuits or not, size of brassiere and swimsuits, dissatisfaction with material, dissatisfaction with function of breast cap.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descriptive statistics value of frequencies and percentile value, mean, and so on by means of the SPSS WIN.10.0 program. The differences among age groups, body type groups by rohrer index, cup size and so on were compared using the chi-square test.

Results of the survey responses about swimsuits breast caps:

Most women have worn swimsuits with caps. According to the results, women who are older or overweight, or have larger breasts, or breasts which sag, as well as those who have had the experience of giving birth responded that they feel uncomfortable because of the slope of their breasts. Concerning complaints about the caps, 61% of respondents complained about the cap size and lack of correspondence with breast size, 56.8% expressed concern about the cap gap.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wearing reason of breast caps forswimsuits among age groups and many kinds of groups.

Key words: swimsuits(수영복), breast cap(브래스트캡), dissatisfaction(불만족도)

I. 서론

근래에 이르러서 바쁘고 힘든 현대의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스포츠나 레저활동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 중 수영은 특히 여성의 건강관리와 체형조절의 측면에서 젊은 여성에서부터 노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가장 즐겨하는 운동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수영복은 이제 단지 여름 시즌만의 특정 계절 아이템이 아닌 사계절 레저웨어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영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영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¹⁾²⁾³⁾와 수영복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⁴⁾, 수영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⁵⁾ 감성과학을 통한 수영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⁶⁾, 수영복 디자인 선호조사 및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⁷⁾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수영복 디자인이나 수영복 구매 및 마케팅에 관한 연구로서 수영복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가슴의 유방조직은 그 특성상 견신력이 없기 때문에 크고 빠른 동작이 반복되어 물의 저항을 받게 되는 특성이 있는 수영 동작시⁸⁾에 유방의 진동을 느끼게 되며 유방진동은 착용감에 관계⁹⁾되는데, 최근 신소재 개발과 패턴 개발 등으로 여성용 수영복의 착용감이 종래에 비해서는 향상되었으나, 수영복의 착용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브래스트캡은 현재 과거에 비해 사이즈나 기능적인 면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¹⁰⁾.

여성용 수영복에는 부착되는 브래스트캡은 비키니 수영복용과 일반 실내수영장용으로 나뉘어 진다. 비키니 수영복의 경우는 시즌마다 점점 다양화되는 디자인변화의 영향에 따라서 브래스트캡의 크기와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에 레저용 수영복 브래스트캡의 경우는 매년 그 형태와 모양에 특별한 변화가 없이 일률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영복 업체에 따라서도 사이즈나 두께가 각각 달라 공통된 규격이나 사이즈가 없는 실정이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다. 현재 주로 판매

되고 있는 수영복의 브래스트캡 사이즈는 3~4가지 정도인 S, M, L, LX 로 표기되어 있다¹¹⁾.

브래지어 치수의 경우에는 밑가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치수¹²⁾¹³⁾에 따라서 컵의 크기가 나누어져 있는데 반해 수영복 브래스트캡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치수규격이 없는 실정이다. 브래지어와 같이 가슴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컵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영복 사이즈에 일정하게 맞추어 부착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특성과 수영시 동작특성이 반영된 기능적인 수영복용 브래스트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영복용 브래스트캡 착용이유 및 불만족도를 조사하고, 응답자의 연령 및 각 문항별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착용감과 기능성이 향상된 여성 수영복용 브래스트캡 설계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수영복용 브래스트캡의 착용실태 및 착용시 불만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정기적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 20대~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수영복용 브래스트캡의 착용실태 및 불만사항을 중심으로 착용자들과의 면담, 관련업체방문, 수영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고찰 등을 통해 작성되었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가슴 유형파악을 위해 응답자의 브래지어 치수 및 결혼과 출산여부, 가슴의 처진정도를 묻는 문항, 수영복과 수영복용 브래스트캡 구매 및 착용실태에 관한 문항, 착용시와 동작시의 브래스트캡에 대한 불만족도에 관한 문항, 브래스트캡 사이즈와 간격에 대한 불만족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중 브래스트캡에 대한 불만족도와 브래스트캡 사이즈와 간격에 대한 불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조사기간 및 분석방법

조사기간은 2001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38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기입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총 36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0.0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분포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령, 신체치수 및 가슴유형에 따른 수영복 브라스트캡의 착용실태 및 불만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착용 및 구매 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표 1>에서와 같이 20대(163명, 44.8%), 30대(67명, 18.4%), 40대(78명, 21.4%), 50대(56명, 15.4%)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 미혼과 기혼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출산여부는 기혼이더라도 출산경험이 아직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기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가 낮게 나타났다. 수영복용 브라스트캡의 착용실태와 불만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응답자 본인의 가슴의 치진 정도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치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13명(58.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가 20, 30대의 젊은 층이 60%이상으로 나타난 구성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체형은 로리지수¹⁴⁾에 의하여 1.32 이상이면 비만체형, 1.13이상 1.32미만이면 보통체형, 1.13미만이면 마른체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보통체형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영복 및 브라스트캡의 구매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표 2>에서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브라지어 치수는 80A를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대부분이 A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영복 치수는 90사이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매하는 수영복의 브라스트캡 유무를 알아본 결과

87.4%(318명)가 브라스트캡이 부착된 수영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사항

(n=364)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29세	163	44.8
	30~39세	67	18.4
	40~49세	78	21.4
	50~59세	56	15.4
결혼여부	미혼	168	46.2
	기혼	196	53.8
출산여부	없다	179	49.2
	있다	185	50.8
가슴의 치진 정도	안치짐	213	58.5
	치짐	151	41.5
체형	마른체형	50	13.7
	보통체형	161	44.3
	비만체형	153	42.0

수영복에 브라스트캡이 달려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수영복과 브라스트캡의 연결끈이 완전히 부착된 고정형이 55.3%(176명)로 나타난 반면에 연결고리에 의한 탈부착식의 분리형은 44.7%(142명)로 나타나 고정형이 분리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브라스트캡만 별도로 구입한 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별도로 구입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74.5%(271명), 별도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5%(93명)로 나타났다. 별도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브라스트캡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먼저 구입한 수영복에 캡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아 브라스트캡의 형태가 변형된 경우, 브라스트캡을 재구입하거나 브라스트캡이 없는 수영복을 구입했다더라도 브라스트캡을 별도로 구입해서 수영복을 착용시 브라스트캡을 부착하여 착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브라스트캡의 보정기능 필요유무를 알아본 결과 보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3.6%(275명)로 '필요없다'(54명, 16.4%)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정기능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한지를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 가슴을 받쳐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50.2%(1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슴을 모아주는 기능

(24.7%, 68명)과 가슴에 볼륨을 주는 기능(21.8%, 60명), 기타(3.3%, 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서 조사한 결과는 <표 3>에서와 같이 ‘수영동작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표 2> 수영복 및 브래스트캡 구매 조사 결과

문항	치수		빈도	백분율	
응답자의 브래지어 착용치수 (n=364)	75	A컵	85	98	26.9
		B컵	12		
		C컵	1		
	80	A컵	117	147	40.4
		B컵	21		
		C컵	9		
	85	A컵	51	69	23.1
		B컵	17		
		C컵	16		
	90	A컵	9	25	6.9
		B컵	7		
		C컵	9		
	95	A컵	2	9	2.4
		B컵	4		
		C컵	3		
100	A컵	1	1	0.3	
	B컵	-			
	C컵	-			
수영복 구매치수 (n=364)	8 0		15	4.3	
	8 5		77	21.1	
	9 0		155	42.5	
	9 5		90	24.7	
	100		25	6.8	
	105		1	0.3	
브래스트캡 유무에 따른 구매 (n=364)	캡이 있는 수영복 구매		318	87.4	
	캡이 없는 수영복 구매		46	12.6	
브래스트캡 부착형태 (n=318)	고 정 형		176	55.3	
	분 리 형		142	44.7	
브래스트캡의 별도 구매이유 (n=93)	캡의 형태 손상으로 인해 구입한 수영복에 브래스트캡이 없어서		42	45.1	
	브래스트캡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27	29.0	
	브래스트캡이 없어서		15	16.1	
	브래스트캡이 많아서		9	9.8	
보정기능성 필요유무 (n=329)	필요하다		275	83.6	
	필요없다		54	16.4	
필요한 보정기능 (n=275)	가슴을 받쳐주는 기능		138	50.2	
	가슴을 모아주는 기능		68	24.7	
	가슴에 볼륨을 주는 기능		60	21.8	
	기 타		9	3.3	

2. 수영복용 브래스트캡 착용이유 및 불만족도 조사결과

브래스트캡이 있는 수영복을 착용하는 이유에 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가슴모양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29.1%, 106명), ‘젖꼭지 부분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22.0%, 80명)의 순으로 나타나 수영동작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가슴

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 주로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연스러운 점과 함께 가슴을 감싸는 정도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표 3> 브래스트캡이 있는 수영복을 착용하는 이유

(n=364)

브래스트캡 착용이유	빈도	백분율
수영동작시 가슴이 흔들려서 불편하므로	132	36.3
가슴모양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106	29.1
젖꼭지 부분이 표시가 나므로	80	22.0
브래스트캡 착용안함	46	12.6

수영복 브래스트캡의 불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볼 때 브래스트캡의 형태가 가슴을 자연스럽게 표현 하면서 가슴전체를 감쌀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이 요

<표 4> 브래스트캡의 요인별 불만정도

단위: 명(%)

불만요인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영동작시 브래스트캡이 움직인다.	48 (13.2)	158 (43.4)	83 (22.8)	74 (20.3)	1 (0.3)
수영복에 연결된 브래스트캡의 연결고리가 빠진다.	28 (7.7)	119 (32.7)	91 (25.0)	108 (29.7)	18 (4.9)
봉제선이나 연결고리가 배겨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렵다.	13 (3.6)	94 (25.8)	131 (36.0)	101 (27.7)	25 (6.9)
브래스트캡 모양의 자연스럽지 않다.	58 (15.9)	140 (38.5)	134 (36.8)	28 (7.7)	4 (1.1)
브래스트캡은 가슴전체를 감싸는 형태여야 한다.	79 (21.7)	183 (50.3)	67 (18.4)	31 (8.5)	4 (1.1)

우선, 브래스트캡에 대한 불만요인에서 불만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수영동작시 브래스트캡이 움직이는데 대한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이 56.6%(20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수영동작시 브래스트캡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기능이 전체적인 착용감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임을 알 수 있었다. 브래스트캡의 형태에 대해서도 불만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브래스트캡의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54.4%(198명)로 나타나 사이즈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브래스트캡 모양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캡이 가슴전체를 감싸주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경우는 전체의 72.0%(262명)로 기존의 브래스트캡의 모양이 부

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수영복에 연결된 브래스트캡의 연결고리가 빠지는데 대해서는 40.4%(147명)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약간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래스트캡의 봉제선이나 연결고리로 인해 피부에 가려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6.0%(131명)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다른 문항에 비해 불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수영복 브래스트캡의 불만요인 중 불만도가 높게 나타난 2가지 항목인 캡의 사이즈, 캡의 좌우간격에 관한 불만족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브래스트캡이 '크다'나 '약간 크다'고 응답한 경우와 '작다'나 '약간 작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전체

<표 5> 브라스트캡 사이즈와 간격에 대한 불만족도

단위: 명(%)

문항	크다/넓다	약간 크다/넓다	보통	약간 작다/좁다	작다/좁다	합계
브라스트캡 사이즈	39 (10.7)	84 (23.1)	118 (32.4)	76 (20.9)	47 (12.9)	364 (100)
브라스트캡 좌우간격	21 (5.8)	103 (28.3)	146 (40.1)	74 (20.3)	20 (5.5)	364 (100)

의 33.8%(123명)로 나타나 브라스트캡의 사이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응답이 전체의 67.6%(246명)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브라스트캡의 좌우간격에 대해서는 넓거나 좁아서 불만족한 경우가 전체의 59.9%(219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브라스트캡의 사이즈나 간격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사이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수영복용 브라스트캡의 착용이유에 대한 각 문항별 차이분석

수영복용 브라스트캡의 착용이유의 차이를 응답자의 연령, 일반적 특성, 신체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표 6>에서와 같이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특성으로는 연령, 로리지수로 구분한 3체형(비만, 보통, 마른체형), 브래지어 치수, 수영복 치수, 가슴의 처진정도, 결혼여부, 출산여부에 대한 항목이며, 이 문항들과 브라스트캡 착용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브라스트캡 착용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20대의 경우 가슴모양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브라스트캡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30, 40, 50대의 경우는 수영동작시 가슴이 흔들려서 불편하기 때문에 브라스트캡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20대 젊은 여성은 미적으로 가슴형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라스트캡을 착용하는 반면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라스트캡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에 한해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별

도의 브라스트캡을 분리해서 착용하지 않거나 브라스트캡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수영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40, 50대의 연령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착용쾌적감이 중요시됨을 알 수 있었다. 결혼에 따른 브라스트캡 착용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미혼인 경우 '가슴모양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브라스트캡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0%(71명)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기혼인 경우에는 '수영동작시 가슴이 흔들려서 불편하기 때문에'가 60.0%(80명), '젖꼭지 부분이 표시가 나므로'가 53.7%(43명)로 응답한 비율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산에 따른 브라스트캡 착용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수영동작시 가슴이 흔들려서 불편하기 때문에'가 59.9%(79명)로 나타나 출산경험이 없는 경우의 40.1%(53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슴모양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브라스트캡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가 29.2%(31명)로 나타난 반면에, 출산경험이 없는 경우는 70.8%(75명)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형에 따른 브라스트캡 착용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수영동작시 불편함과 '젖꼭지부분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브라스트캡을 착용하는 경우는 비만체형에서 각각 49.2%(63명), 46.3%(29명)로 다른 체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슴모양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브라스트캡을 착용하는 경우는 보통체형에서 56.6%(60명)로 다른 체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브래지어 컵사이즈(A컵, B컵, C컵)에 따른 브라스트캡 착용이유를 알아본 결과 가슴모양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브라스트캡을 착용하는 경우는 컵사이즈가 작은 A컵인 경우에 90.6%(96명)로 나타나 다른 B컵과 C컵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A컵을 사용하

는 경우에 가슴모양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캡을 착용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 여성 수영복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 20대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한 소비자 설문

<표 6> 응답자의 일반적, 신체적 특성에 따른 브라스트캡 착용이유의 차이

구분	항 목	수영동작시 가슴이 흔들려서 불편하므로 (n=132)	가슴모양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n=106)	젖꼭지 부분이 표시가 나므로 (n=80)	브라스트캡 착용안함 (n=46)
		빈도 (Col%)	빈도 (Col%)	빈도 (Col%)	빈도 (Col%)
연령	20대	52 (39.4)	69 (65.1)	35 (43.8)	7 (15.2)
	30대	32 (24.2)	16 (15.1)	14 (17.5)	5 (10.9)
	40대	25 (18.9)	16 (15.1)	19 (23.8)	15 (32.6)
	50대	20 (1.5)	5 (4.7)	12 (14.9)	19 (41.3)
$\chi^2 = 56.962^{**}$					
결혼	미혼	52 (39.4)	71 (67.0)	37 (46.3)	8 (17.4)
	기혼	80 (60.0)	35 (33.0)	43 (53.7)	38 (82.6)
$\chi^2 = 36.242^{**}$					
출산	없다	53 (40.1)	75 (70.8)	42 (52.5)	9 (19.6)
	있다	79 (59.9)	31 (29.2)	38 (47.5)	37 (80.4)
$\chi^2 = 40.541^{**}$					
체형	마른체형	15 (11.4)	21 (19.8)	12 (14.9)	4 (8.7)
	보통체형	52 (39.4)	60 (56.6)	31 (38.8)	18 (39.1)
	비만체형	63 (49.2)	37 (23.6)	29 (46.3)	24 (52.2)
$\chi^2 = 55.599^{**}$					
캡 치수	A컵	77 (58.3)	96 (90.6)	62 (77.5)	30 (65.2)
	B컵	30 (22.7)	7 (6.6)	9 (11.25)	15 (32.6)
	C컵	25 (19.0)	3 (2.8)	9 (11.25)	1 (2.2)
$\chi^2 = 44.745^{**}$					
가슴 처짐	안처졌다	63 (49.2)	81 (76.4)	46 (57.5)	23 (50.0)
	처졌다	69 (50.8)	25 (23.6)	34 (42.5)	23 (50.0)
$\chi^2 = 45.064^{**}$					

*p<0.05, **p<0.01, ***p<0.001 Col% : Column %

가슴의 처진 정도에 따른 브라스트캡 착용이유를 알아본 결과 가슴모양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브라스트캡을 착용하는 경우는 자신의 가슴이 처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23.6%(25명)를 나타낸 반면에 자신의 가슴이 처지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 76.4%(81명)로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레저

조사를 통하여 수영복 브라스트캡에 대한 착용실태 및 불만사항 등을 알아보고 아울러 응답자의 연령, 일반적 특성, 신체특성별로 나누어 수영복 브라스트캡의 착용이유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착용 및 구매 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브래지어 치수는 80A를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대부분이 A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복 치수는 90사이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매하는 수영복의 브라스트캡 유무를 알아본 결과 87.4%가 브라스트캡이 부착된 수

영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영복과 브래스트캡의 연결끈이 완전히 부착된 고정형이 연결고리에 의한 탈부착식의 분리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브래스트캡만 별도로 구입한 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별도구입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지만, 별도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브래스트캡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는 브래스트캡을 재구입하거나 브래스트캡이 없는 수영복을 구입했다라도 브래스트캡을 별도로 구입해서 수영복을 착용시 브래스트캡을 부착하여 착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브래스트캡의 보정기능 필요유무를 알아본 결과 보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필요한 보정기능으로는 가슴을 받쳐주는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수영복용 브래스트캡 착용이유 및 불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우선, 브래스트캡이 있는 수영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수영동작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가슴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 주로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래스트캡에 대한 불만요인에서 수영동작시 브래스트캡이 움직이는데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 수영동작시 브래스트캡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기능이 전체적인 착용감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임을 알 수 있었다. 브래스트캡의 형태에 대해서도 사이즈에 대한 불만 뿐만 아니라 브래스트캡 모양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브래스트캡의 형태가 가슴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가슴전체를 감쌀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수영복 브래스트캡의 불만요인 중 불만도가 높게 나타난 2가지 항목인 캡의 사이즈, 캡의 좌우간격에 관한 불만족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응답자 본인의 가슴에 비해 브래스트캡의 크기나 간격에 대해 모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수영복용 브래스트캡의 착용이유에 대한 연령 및 각 문항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먼저, 연령에 따른 브래스트캡 착용이유는 20대 젊은 여성은 외형적인 미에 관심을 두고 이를 목적으로 브래스트캡을

착용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착용쾌적감과 동작기능성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래스트캡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 중 대부분이 40대 이상으로 브래스트캡을 착용해서 불편함을 느낄 경우 브래스트캡을 착용하지 않거나 브래스트캡이 부착되어 있지않는 수영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형적인 면보다 착용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체형에 따른 브래스트캡 착용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인 경우는 브래스트캡을 착용하는 이유로 가슴 모양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브래스트캡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만 체형인 경우에는 수영동작시 가슴이 흔들려서 불편하기 때문에 브래스트캡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브래스트캡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각 문항별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즉,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체형이 변화되며 그 과정에서 가슴의 크기나 형태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외형적인 미를 추구하던 경향이 점점 착용감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수영복용 브래스트캡의 설계시에도 연령층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이즈 체계와 브래스트캡의 형태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실제적으로 반영한 기능적인 패턴 설계와 동작기능성 및 착용감 테스트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진선희 (1989). 칸단스키의 작품을 응용한 수영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
- 2) 심강희 (1990). 여성수영복에 나타난 문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
- 3) 김유식 (1985). 체형에 따른 수영복 디자인연구 -레저웨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4-69.
- 4) 안영주 (1983). 수영복의 변천과정과 육체노출. 숙명여

-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15.
- 5) 박근화 (1997). 수영복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
 - 6) 장진희 (1998). 경기용 여자수영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감성과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8.
 - 7) 임병리 (2000). 성인여성의 수영복 제작을 위한 수영복 디자인 선호조사 및 의복태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
 - 8) Hines, Emmett, W. (1999). *Fitness swimming*. Human Kinetics.
 - 9) 손부현 (1996). Sports-brassiere의 컷소체에 따른 방진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pp. 123-125.
 - 10) TEXTILE TIMES (2000), pp. 112-113.
 - 11) 신양산업 (2000). 인터뷰 전문.
 - 12) 日本 女性 體位調査 (2000). 日本 와코루 중앙연구소, pp. 10-12.
 - 13) 한국산업규격 (1999), KS K 0070.
 - 14) 이영아 (1998). 성인여성의 수영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제품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15.